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9월! 이제 가을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끝나자마자 다가온 이른 추석을 맞아 회원여러분과 가족들 모두에게 건강과 평화, 화목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풀어낼 것 묶을 것

갇속지기의 아들에게
비둘기 한 마리를 주었더니
아이는 비둘기를 놓아주었다.

왜냐고 물었더니
그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가

-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들의 노래」 중
아르만도 테하다 고메스(Armando Tejada Gomes)

지난 보름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해방 50돌을 맞은 8월15일, 세계 최장기수인 김선명씨가 45년만에 옥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꼭 '풀어내야 할' 보따리를 선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석방된 25명을 제외한 양심수들은 아직도 아귀가 꽉 막힌 보따리로 음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하나, 5.18불기소 처분에 대한 반대와 분노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풀기 어려운 용광로인 학원에서도 48개 대학 4천1백여 명에 이르는 교수들이 시국성명을 내고 △5.18내란 주동자 수사 △국민앞에 사과 △특별법 제정 △헌법소원 수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없어야 할 잘못임이 분명한데 단죄의 자리에 묶이지 않고 허공에 떠있기 때문입니다. 풀어야 할 상처와 진실은 묶여있고, 그 대상자들은 회피와 비호속에 풀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의 비극은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시설의 후진성

을 지나쳐서 참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벌어진 이와같은 사건 앞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은 다시한번 우리 인권운동의 과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과거청산과 불처벌 문제의 해결입니다. 정신대, 5.18, 삼청교육대 등 문민정부 등장이후 해결을 기대했던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불처벌'의 현실은 그 희생자들의 억울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정의의 후퇴와 꺼지지 않는 분노의 화산을 지피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 민간단체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범죄자가 향유하는 '불처벌'은 동일한 범죄의 반복을 고무한다. ... 동시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회복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불가양의 권리임에 틀림없다"는데 입장을 같이합니다.

둘째, 시민, 정치적 권리 실현의 최대 장애물인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양심수의 석방입니다. 인권운동의 고전인양 인식되지만 이 문제는 항상 현재진행형입니다. 특히, 올해말에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국제캠페인과 심포지엄이 펼쳐집니다.

셋째, 인권운동에서 도외시돼온 사회권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역할의 확장입니다. 이번 방화사건에서 나타난 비극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음지에 묶여 있습니다. 이를 양지로 풀어내는 일, 그것이 인권운동의 새로운 과제입니다.

이와같은 과제를 안고 사랑방은 하반기 사업을 힘껏 펼치겠습니다. 풀 것과 묶을 것을 분명히 하는 일, 그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 다음호 부터는 사랑방을 이끌고 계신 운영위원님들의 글이 차례로 실립니다.

사업보고

(8월 셋째주~8월 마지막주)

□ 정기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 □

1. 8/19 사무국, 운영위 합동토론회에 대하여
 - 당면 주요사업으로 제기되고 있는 인권교재 발간 기획, 자료실 종합발전 계획의 확정, 하루소식 모니터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키로 함.
 - 사무국 실무체계에 대한 평가결과 책임자들의 조정, 점검역할이 부족하고 전체의 상황이 각 성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향후 일상적인 보고, 점검체계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사업방식을 보강하기로 함.
2. 하루소식 모니터팀 운영에 관하여
 - 사무국에서 제출한 기획안을 승인하고 담당 운영위원인 김당 운영위원의 지도하에 주제별 중심 모니터 요원을 각계에 위촉하여 추석이후에 가동키로 함.
3. 사무국 인력 충원과 역할 재배치에 관하여
 - 새로운 일꾼 모집 광고를 한겨레에 게재하고 면접을 통해 충원키로 함.
 - 역할 재배치는 원칙적으로 자료실에 가장 적당한 사람 1명을 충원키로 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배치를 결정키로 함.
4. "하루소식 500호 발간 기념 및 인권정보 자료실 기금 마련전"에 관하여
 - 일시를 10월14일 오후 2시에서 10시까지로 하고, 장소는 남영동에 소재한 규모가 큰 맥주집을 임대키로 함.
 - 1부는 자문위원과 후원자에 대한 사은행사, 사업설명의 시간을, 2부는 기금 마련전을 갖기로 함(자세한 일정은 다음호에 보고).
 - 기금마련은 사랑방 소유 서화판매, 일일주점 티켓을 판매키로 함.

☞ 운영위 논의 및 결정사항 중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나 기타 제안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 휴가 끝내고 정상업무 복귀 □

- 지난 7월말부터 진행된 사무국의 휴가가 김

정희씨의 휴가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 (주)화엄정보통신 P.C 통신상

인권정보, 자료 서비스 추진제안 □

- P.C 통신에 '열린나라'라는 이름의 시스템으로 미디어와 일러스트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정보회사인 (주)화엄정보통신이 사랑방이 소유한 인권정보와 자료목록을 공개 서비스체제로 가동하고, '인권상담관'을 새롭게 개설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 이는 사랑방의 숙원사업이기에 적극 추진키로 하고, 단지 조금 앞을 내다보면서 상대 회사가 적당인가의 여부를 검토하면서 최종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인권정보자료실> 본격 추진키로 □

- 그간 잦은 담당자의 교체, 기본 자료정리의 과다, 장기전망에 대한 모색 등으로 본격 가동되지 못하던 자료실을 <인권정보자료실>로 칭하고 사무국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 체계를 갖추어 본격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담당 운영위원은 백승현 운영위 간사님이 맡고 사무국은 기존의 강기훈씨와 새로운 1인이 배치되며, 외부 약관명의 자문단과 자원봉사자를 보강하여 하나의 완결된 체계를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 자료실의 중,장기 사업계획은 10월14일 기금 마련전까지 정리하여 배포키로 하였습니다.

□ 성공회대학, 국내 최초 '인권' 강좌 개설

사랑방 인권교육실 강사로 참가키로 □

- 성공회 대학이 이번 가을 학기부터 교양필수로 '인권과 평화'라는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정규 과목에 인권과 관련해 개별적인 주제가 아닌 하나의 영역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최초의 시도이고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인 것입니다.

- 인권운동사랑방은 이 강좌중 4번의 강좌를 맡아 이제껏 인권교육실에서 개발한 인권교육 실습 프로그램을 갖고 '살아있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서준식 대표 일본어판 책 출판 □

- 서준식대표가 이제까지 한국에서 출판하거나 정간물에 기고한 글을 묶어서 출판한 『自生への情熱-한국의 정치범으로부터 인권운동가로』가 일

본에서 출판되었습니다.

- 이 책을 일본어로 번역한 니시무라 마코토씨는 서준식씨가 수감된 1971년부터 17년간 '서형제 구원운동'을 해온 사람으로 서준식씨의 옥중 서간집을 일어로 번역하면서 한국말을 깨우쳐 이번 번역물을 다시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사무국에 약 4권의 수량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관련 사회단체 편람 재판 발행키로 ☐

- 지난 2월 현 사무실 입주 기념으로 발간했던 인권단체 편람을 보강, 증보하여 하루소식 500호 발간 기념으로 출판키로 하였습니다.
- 이 편람에는 국내 주요인권단체, 사업내용상 인권과 관련된 단체, 외국의 주요인권단체, 교포인권단체등의 주요 임원, 사업, 연락처 등을 담게 됩니다.
- 필요한 분들은 미리 연락을 바라며 운영·자문위원님들께는 추후 발송할 예정입니다.

☐ 하반기 인권 활동가를 위한 인권강좌 확정 ☐

- 지난 상반기 인권이론, 국제인권법, 헌법, 형사소송법 등을 중심으로 22회로 마무리한 1학기 강좌에 이어 이번 9월부터 1학기를 보충하는 주제를 잡아 12회의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함께 일할 일꾼을 찾습니다>

* **인권운동사랑방은 우리사회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힘쓰는 인권전문센터로 함께 연구하고 인권현장에 가까와질 젊은 활동가를 찾습니다.** 운영, 자문위원들께서는 주변에 많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인권자료실원, 하루소식 기자, 국제연대담당자 약간명
- 9월 11일까지 이력서 및 자기소개 및 인권운동에 대한 의견서(A4 용지 2매 분량)
- 인권단체 혹은 인권관련 사업 종사자 추천장(가능할 경우)
- 면접후 개별 통지 함.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제2기 공개강좌

- ▶ 기간: 1995.9.16.-12.16(12주)
-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1시
-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 대상: 인권문제에 관심있는 모든 이
- ▶ 수강료: 모든 강좌 3만원, 1강좌당 5천원(운영·자문위원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음)
- ▶ 문의: ☎ 715-9185(담당 김수경)
- *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권해 주십시오.

	날짜	강의주제	강사
1회	9.16	세계의 사형제도	고은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부위원장)
2회	9.23	장애인 고용문제와 현황	김정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획실장)
3회	9.30	아내구타, 성폭력 -여성문제	한국여성의 전화
4회	10.7	북경여성대회 보고 및 평가	이상덕 (한국NGO위원회 총무)
5회	10.21	판례를 중심으로 본 국가보안법	이석연(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변호사)
6회	10.28	한국노동문제의 유형과 내용(총론)	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7회	11.4	" (각론)	"
8회	11.11	동성애자의 인권	서동진 ('친구사이' 회장)
9회	11.18	여성관련 국제조약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회장)
10회	12.2	보안관찰법	미정
11회	12.9	행려자의 인권	"
12회	12.16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한국, 그리고 나	"

자료소식

이번호에는 일어책 중에 소개되지 않은 책들 중 주요한 책들을 모아서 소개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제별로 영문, 일어, 국문 자료들을 모아서 소개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인권자료실로 연락하시면 대출 또는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取材される側の權利(취재되는 사람들의 권리)/東京辯護士會編/272/B/1990.2.28/Ja

‘취재되는 편에 선 사람들의 인권문제’를 다룬 책. 세계 인권선언 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어떤 사람도 프라이버시, 가정, 주거나 통신에 대하여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그 명예와 신상에 대한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정신을 주제로 동경변호사회에서 엮었다.

4부로 나뉘어 있는데, 1부는 ‘나는 이렇게 취재. 보도되었다’로 사례 보고이며, 2부는 “‘취재되는 사람들의 권리(안)’, 3부는 ‘인권과 보도의 실체를 생각한다’로 언론자유와 인격론, 사진주간의 논리와 수법, 실명보도제한의 역사 등을 서술. 4부는 “‘취재되는 사람들의 권리(안)’을 만든다”로 동경변호사회 인권옹호위원회에서 취재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정리한 글이다.

□ 情報公開法をつくろう - アメリカ情報自由法に學ぶ(정보공개법을 만들자- 미국 정보자유법에서 배운다)/JCLU(社團法人 自由人權協會)/188/B/1990.9.27/Ja

JCLU가 1976년 11월부터 <정보공개소위원회>를 통해 연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보공개제도」의 역사와 사례를 정리했으며, 정보공개법 모델(안)을 제기하고 내용을 설명한 책이다. 특히 미국의 ‘정보자유법’을 분석하고 한계와 배울 점을 정리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크게 나누어, 소비자의 권리와 정보공개, 미국의 정부정보에 대한 접근(Access)권의 실현, ‘정보공개법 제정-미국 정보자유법에서 배운다’로 이루어져 있다.

□ 入門.部落解放運動(입문.부락해방운동)/部落解放運動研究所 編/281/B/1989.8.10/Ja

일본 반차별운동의 대표적인 부락해방운동에 대한 개설서이다. 부락해방운동의 이론과 역사를 상세히 서술하였고, 그 운동과 실천에 대해서 언급한다. 특히 오오사카【大阪】해방운동사를 밀도있게 정리하고 있다.

□ 部落の歴史と解放運動(부락의 역사와 해방운동) 近現代篇/部落問題研究所 編/423/B/1990.1.30/Ja

부락과 부락해방운동 역사에 대한 집대성이다. 막부말기 천민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일본근대화(메이지유신)과정에서 부락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추적하고, 이어 자본주의의 발달, 독점자본주의의 성립에서 시작된 각 사회운동을 개관한다. 이어 수평운동과 융화운동, 수평운동의 전개, 전시의 부락문제, 전후사회와 부락문제로 나누어 「부락해방운동」을 총정리하고 있다.

□ 差別の意識構造(차별의 의식구조)/八木晃介/422/B/1988.1.15/Ja

일본의 사회적 차별문제를 차별의식의 근원과 사회심리학적 관점을 통한 분석, 실증에, 역사적 근원을 추적했다.

□ 國際社會と新たな人權の課題(국제사회와 새로운 인권의 과제)/反差別國際運動日本委員會/142/B/1992.4.30/解放出版社/Ja

환경권, 아동권, 소수자 차별, 개발문제 등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핵심주제를 리포트했다.

□ 人の<いのち>と人權(사람의 <생명>과 인권)/小野寺利孝/71/B/1987./Ja

사람의 생명권과 인권의 관계를 아동, 환경, 전쟁(침략), 사형제도 특히 인간중심의 문명에 대해 논하였다. 사진을 곁들였다.

□ 障害者の解放運動(장애인의 해방운동)/木田一弘 외/253/B/1982.2.15/三一書房/Ja

장애인 해방운동의 역사와 운동 유형론을 밝혔다. <권리 보장형>과 <고발형>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1. 양호학교 의무화 문제에 대한 견해, 동향, 전망 2. 장애인 교육권 실현문제를 싣고 있다.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검은 공기위로 보이는 하늘이 거짓말같이 파랗습니다. 회원여러분의 건강과 사업 또한 요즘 하늘처럼 화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7일 <인권하루소식>이 발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인권하루소식>과 사랑방을 채찍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힘찬 시동을 걸고 있는 <인권정보자료실>에 더욱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인권운동의 전사가 되자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강경선(교수, 방송대 법학과)

인권은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공적 권리입니다. 인권은 권리라는 점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인권을 불가침적으로 보장받을 주관적 의미의 권리를 향유합니다. 하지만 인권은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권리의 측면만이 아니고, 객관적인 법질서의 한 내용이라는 측면도 갖습니다. 즉 한 사람의 인권의 침해는 주관적으로 보면 피해자인 당사자의 문제로 국한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법질서가 깨져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권의 침해에는 제 3자가 있을 수 없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로써 개입해야 할 과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9월 15일자 <인권하루소식> 머릿기사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우리나라의 제3자 개입금지를 유엔의 자유권조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권보장에서 제3자의 참여는 필수적이고, 민주국가라면 재정적 후원을 해서라도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장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질서가 훼손되는 마당에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치유를 담당하고자 하는 것을 왜 막고 심지어 처벌까지 한단 말입니까?

사용자에 비하여 훨씬 열악한 인권상황에 놓인 노동자의 활동을 조력해서

노사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생산현장을 즐겁게 하므로써 마침내 인간다운 공장과 기업을 만드는 일을 하기는 커녕, 도리어 노동자의 인권행사만을 제약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권의식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보장을 위한 제3자의 참여-더욱 정확하게는 '자기참여'-의 요청은 노동법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온갖 곳에서 살아있는 건강한 시민이라면 부단히 자기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권의 침해현장에서 그것을 방지하고 원상으로 회복하는 일에 열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화의 시대, 국제화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이 빠진 전문화나 국제화는 이 시대의 화근이 됩니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튼튼한 인식에 바탕을 두지 않은 물량의 확대생산은 인간을 소외시키고 인간에게 유해하기만한 환경파괴 이상의 의미를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상생활로부터 국가생활, 국제생활에 이르기까지 전영역에 걸쳐있는 전선에서 우리는 그 어디가 되었던 인권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인권운동의 전사가 되도록 합시다.

이번 호부터는 사랑방을 이끌고 계신 운영위원님들의 글을 연재합니다.

사랑방의 열매를 가꾸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사업보고

(9월 첫째주~9월 둘째주)

□ 활동가를 위한 하반기 인권강좌 개강 □

- 지난 상반기 인권이론, 국제인권법, 헌법, 형사소송법 등을 중심으로 22회로 마무리한 1학기 강좌에 이어 이번 9월 16일 하반기 제 1강 “세계의 사형제도”를 앰네스티 한국지부 고은태 부지부장님을 모시고 듣게 되었습니다.

□ 인권교재 발간계획 확정 □

- 그간 ‘알기쉬운 인권교재’ 시리즈 발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오던 검토작업이 종료되고 발간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습니다.

- 우선 선정한 주제는 “수감자의 권리-감옥생활의 모든것”과 “국제인권법 입문”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담당 운영위원은 광노현 교수님이 맡아주시기로 하였고, 수감자의 권리는 만화를 곁들여 새로 집필하기로 하였고, 국제인권법 개론은 상반기 인권강좌의 성과를 묶는 개설서로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 사무국 인력 재배치 □

- 지난 1년간 인권하루소식 기자로 고희(?) 짜내던 최은아씨가 인권정보자료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 인권정보자료실의 안정적 구축이 향후 사랑방의 주요 전략 사업의 하나인 이유로 기존 사무국원을 이동시키게 되었습니다.

□ 신규 일꾼 모집을 위한 면접 실시 □

- 사무국 신규 일꾼 모집에 모두 7명의 희망자가 원서를 접수했으며 지난 14일 운영위에서 강경선 부위원장, 백승현 간사님이 참가했고 사무국에서는 박래군, 노태훈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 새로운 일꾼의 선정은 면접한 결과를 토대로 차기 운영위원회(9월22일)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5.18 학살자 기소관철을 위한

제단체 실무 연석회의>에 참가 □

- 검찰의 5.18관련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끓어오르기 시작한 항의 성명, 시위등을 한데

묶어내고 효과를 증폭시켜내기 위해 지난 8월 30일 위 연석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 연석회의는 토론회, 서명운동, 항의 국민대회, 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입법청원등의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 가깝게는 9월 16일에 국회앞에서 특별법제정을 위한 4차 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며 9월 22일에는 서명을 모아 특별법 청원식 및 국회청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국가보안법 국제 심포지움> 일정 확정 □

- 사랑방이 간사단체를 맡고있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이 11월 22일-11월 25일까지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 올해초부터 준비되어오던 위 행사는 부대행사로 10월, 11월에 국내홍보, 국제캠페인, 국내 심포지움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이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공동주최단체를 모집하고있습니다.

□ ARRC 인권교육 워크샵에 류은숙씨 참가 □

류은숙 인권교육실장이 오는 21일부터 일주일간 태국 천부리(Chonburi)에 있는 ACFOD(개발에 관한 아시아 문화포럼)에서 열리는 ARRC(인권교육을 위한 아시아지역 자료센터) 인권교육에 참가한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인권의 개념과 철학, 인권교재와 기준, 인권침해, 여성과 인권 등의 주제들이 다뤄지며, 혜진스님이 함께 참가합니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정부 보고서 사전심 의에 교육실장 참가. 해외연수도 겸해 □

- 지난 91년 12월에 한국에 발효된 유엔 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의무에 따라 한국정부는 94년 11월 최초 보고서를 유엔의 “아동의 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심사가 96년 1월에 열리며 95년 11월에는 사전 실무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 인권운동 사랑방은 지난 94년 말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아동관련 단체들과 제 인권단체에 이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민간 단체 공동위 결성을 제안해 95년 3월 15일에 “어린이, 청소년권리 연대위원회”를 결성되게 되었으며 간사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그간 연대회의는 정부보고서가 정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갖고 민간단체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이를 작성하여 비엔나에 위치한 "아동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유엔 아동권위원회에 제출케 되었습니다.

- 인권운동사랑방은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하기 위해 의제와 안전을 정리하는 사전실무위원회에 류은숙 교육실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00호 발간 기념 ·
인권정보자료실 건립 기금 마련전

- 일시: 10월14일(토) 낮12시부터 밤10시
- 장소: 알펜호프(숙대입구 전화: 716-2244)
- 인권운동사랑방 자문위원, 인권하루소식 독자

초대 행사 - 오후4시30분(가수 원창연씨 출연)

* 하루소식 독자와 자문위원들께는 초대권과 초청장이 별도로 전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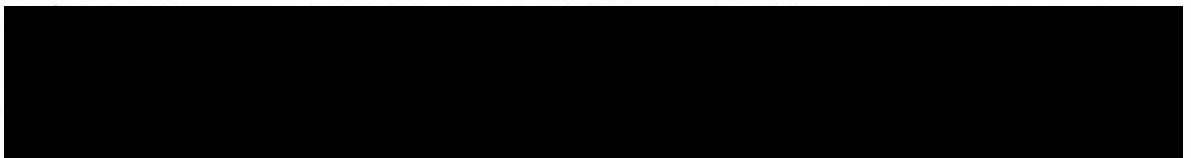
<제17차 운영위원회 소집 공고>

- 일시 : 1995년 9월 22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덕수합동법률사무소(567-2316, 김형태 운영위원 사무실)
- 주요안건
 - 사업 및 재정보고
 - 신규일꾼 채용확정
 - 제 연대회의 가입결정
 - 기금마련전에 대하여

8월 재정보고

수 입		지 출	
하루소식구독료	2,511,490	활동비	3,360,000
회비	1,600,000	전화,팩스송신료	1,502,680
적립금인출	1,300,000	집세	452,120
차입(백승현)	1,500,000	사업비(장기수캠페인분담금, 인쇄, 취재비)	540,150
집세(김동한)	300,000	사무비(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비, 문구)	313,800
기타(인권교육, 합본호판매 등)	163,950	자료구입비	190,700
		우편발송비	341,100
계	7,375,440원	식대(야근자 저녁식대)	252,650
7월 이월금	-1,602,759원	잡비	88,220
		계	7,041,420원
		잔액	-1,268,739원

<8월 운영위원, 자문위원 회비납부자 명단>



자 료 소 식

이번 호에서는 고문에 관한 주요 자료들을 단행본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되는 고문 관련 자료 외에도 아티클 등의 주요자료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인권정보자료실로 연락하시면 대출 또는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PSYCHOTHERAPY WITH TORTURE SURVIVORS/RCT/1992/81/en

고문희생자들에 대한 정신요법을 소개한 덴마크의 고문피해자재화센터(RCT)의 책자. 고문희생자를 위한 정신요법의 역사, 고문의 방법, 고문 피해의 심리적인 반응, 고문의 정신적인 후유증, 고문희생자의 정신치료과정 등에 대해 케이스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고문과 고문후유증에 대한 권위서다.

□ The Breaking of Bodies and Minds/Eric Stover 外/AAAS/1985/319/en

미국 진보과학자연대회의에서 편집한 고문 후유증에 관한 필독서. 고문이 피해자에게 끼치는 의학적, 심리적, 정신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국내의 연구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다. 단, 85년에 출판된 관계로 주로 당시 소련사회의 고문문제에 대한 언급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점이 흠이다.

□ 拷問防止協約에 관한 資料集/법무부/법무부법무실/1988/262/ko,en

고문방지조약(협약)에 가입할 것을 목적으로 미리 법무부에서 펴낸 책으로, 정부의 관점에서 유엔고문방지조약(협약)에 대한 조문해설과 배경설명이 이루어져 있다. 국제인권단체에서 진행된 고문방지에 관한 노력을 설명하는데는 부족하지만, 고문방지조약의 조문에 대한 이해와 설명은 나름대로 충실하다.

□ PSYCHOLOGICAL EFFECTS OF POLITICAL REPRESSION/Diana R. Kordon 外/1988/197/en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를 돕는 심리학자 그룹이 덴마크의 저명한 고문피해자 단체인

RCT의 재정적인 후원으로 발간한 책. 이들 학자들은 고문과 실종이 남긴 정신적인 후유증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피해자 본인 만이 아니라 그 가족도 후유증을 앓게 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 의학적 치료가 요구됨을 밝힌다. 고문 자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고문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권하고 싶은 책.

□ ああ民主よ! 統一よ!/在日韓國人政治犯을 救援하는 모임/三一書房/1987/271/ja

독재정권 치하에서 고문살해되었거나 의문사, 분신한 열사들의 각종 기록들을 모은 자료이다.

□ 전세계 고문·拷問/정재룡/시사평론사/1987/604/ko

전세계에서 자행되는 각종 고문자료를 참조하여 쓴 책이다. 고문의 기법과 고문이 이루어지는 각종 메카니즘들, 그리고 고문의 정치적인 배경 등에 대하여 각종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엮은 책이다. 나찌의 아우슈비츠에서부터 소련과 동구권 국가,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남미 등을 총망라했다. 하지만, 체계적인 서술보다는 지은이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와 서술이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어 체계적인 분석이나 정리는 부족하다.

□ 제3차 고문에 관한 국제회의의 참가보고서/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1991/ko,en

1991년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열린 조직화된 폭력의 피해자의 구제에 관여하는 센터, 기관, 전문가들이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쓴 보고서와 칠레 정치범 감옥 방문기, 그리고 이 회의에 제출한 고문에 관한 보고서를 모은 자료집이다.

□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민변,인의협,문국진모임/1994/110/ko

우리나라 최초로 정신적인 고문후유증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문국진씨의 사례를 비롯해, 10여가지 사례가 수록되어 있고, 고문과 후유증에 관한 외국의 자료사 번역되어 수록되어 있다.

□ 고문 용공조작 없는 세상을 위하여/한교협 인권위/1988/185/ko

□ 우리들의 딸 권양 I·II/한교협 인권위/1987/각 300여쪽/ko